

봉 축 사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지 2563년째 되는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대하게 초파일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불자 여러분과 군민이 함께하는 뜻 깊은 초파일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신흥사 **법공주지스님**, 신도회 **김양수** 회장님과 신도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신우철** 완도군수님과 완도군의회 **○○○,○○○**,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 단체장님과 내외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신도회 여러분!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1천 5백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 받는 중생의 구제를 위해 불교는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국불교, 호국불교로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교훈과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민감한 시기에 서로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고 관용하는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 내려 진실 된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면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가면서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거듭 부처님 탄신을 기쁜 마음으로 기리면서, 불자여러분의 수행정진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갖게 할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